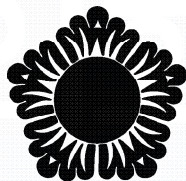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25. 10.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해외 주요도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비교시찰을 통해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의 의정활동 활용 계획 및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공무국외활동 개요

- 기 간 : 2025. 9. 14.(일) ~ 2025. 9. 21.(일) (6박8일)
- 시 찰 지 : 미국(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 주 제 : 국제 관광도시로서 서울 경쟁력 제고 전략 및 가치 창출
- 방문기관 및 목적

방문기관	방 문 목 적
1. 매사추세츠 주의회	문화·관광·체육 정책 및 입법·예산 심의 사례 분석, 보스턴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파악
2. 프리덤 트레일	보스턴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보 관광 코스 개발 및 해설 프로그램 강화
3. 뉴욕주의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입법·예산 사례 분석, 도시 브랜딩 전략(I♥NY) 조사
4. 카네기홀	민간기부 기반 재정 구조, 온라인 스트리밍 등 수익 다각화 전략 분석
5. 뉴욕한국문화원	글로벌 K-컬처 확산 전략,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례 조사
6. 뉴욕공공도서관	비영리 재단 운영, 기부·기금 활용, ‘정보의 민주화’ 운영철학 조사
7. 워싱턴 D.C의사당	정치적 상징성의 관광자원화, 민주주의 콘텐츠 활용
8. 코리아스터디그룹	한미관계 증진 및 서울 관광, 문화, 체육정책 개선에 반영
9.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한미우호 증진, 참전기념 공간 운영사례 조사

□ 방문단 구성 : 총 8명

- 단 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
- 단 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3명
 -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
- 수행직원 :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4명

□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구분	직위	성명	업 무 내 용	분야
시의원 (4명)	위원장 (단장)	김 경	○ 공무국외활동 총괄	전체 총괄
	부위원장	아이수루	○ 글로벌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 ○ 문화 인프라 운영 활성화 방안 도출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균형발전 연구	문화 체육 관광
	위 원	김형재	○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례 분석 및 서울 스포츠�관광 전략 반영	
	위 원	김혜영	○ 글로벌 문화교류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구축	
전문 위원실 직원 (4명)			○ 의원수행 및 현지일정 총괄	행정실무 총괄
			○ 국외출장 정책 자료수집 총괄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 예산 및 회계 관리	자료수집 총괄 및 의전지원
			○ 방문도시 기관별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자료수집 및 의전지원
			○ 방문도시 기관별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자료수집 및 의전지원

일자	방문지(출발지)	방문기관
9/14(일) (제1일)	인천(KE091) ▶ 보스턴	· 인천공항 출발(09:30) · 보스턴 로건공항 도착(현지 10:10) <현장방문> · 프리덤 트레일(14:00-15:30) ※ 면담자 선정이 안됨
9/15(월) (제2일)	보스턴	<기관방문> · 매사추세츠주의사당 투어(11:00-12:00) · 매사추세츠주의회(13:00-13:30)
9/16(화) (제3일)	뉴욕	<기관방문> · 뉴욕주의회(11:00-12:00) <기관방문> · 카네기홀(15:00-16:30)
9/17(수) (제4일)	뉴욕	<기관방문> · 뉴욕한국문화원(14:00-14:50)
9/18(목) (제5일)	뉴욕 ▶ 워싱턴DC	<현장방문> · 뉴욕공공도서관(10:00-11:00) <기관방문> · 뉴욕시의회(11:30-13:30)
9/19(금) (제6일)	워싱턴DC	<기관방문> · 미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10:00-11:00) · 워싱턴DC 국회의사당(14:00-15:00) <기관방문> · 한국전참전공원재단(15:20-16:00)
9/20(토) (제7일)	워싱턴DC	·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 출발(13:15)
9/21(일) (제8일)	워싱턴DC ▶ 인천(KE094)	· 인천공항 도착(17:40)

※ **저지시티 변경사유** : 출장 방문기관에서 LOA(LETTER OF APPOINTMENT) 체결을 주장하며, 이의 미이행시 행사진행이 불가하다고 하기에, 긴급히 변호사에 자문함. 자문결과 체결시 개인이익 추구의 우려 및 조문간 상충 등의 의견을 받음. LOA 체결을 계속 주장하기에, 이를 거부하고 공식일정에 참석 못함

기관방문 : 매사추세츠주의회 (Massachusetts State Legislature)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매사추세츠주의회(Massachusetts General Court)는 1780년 매사추세츠주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입법부 중 하나임. 양원제로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있으며, 주 전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입법 · 예산 심의 · 행정 감독 기능을 수행함
- 매사추세츠주는 약 7백만 명의 인구와 첨단 과학 · 의료 · 교육 · 금융 · 문화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하버드대 · 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 및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술관, 극장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특징

- 매사추세츠주의회는 총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 40명과 하원 160명이 2년 임기로 선출됨
- 상 ·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원내 운영을 주도하며, 의장(Speaker of the House)과 상원의장(Senate President)이 의회를 대표함
- 전문 분야별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와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s)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 · 관광 · 체육 관련 정책은 주로 “Tourism,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Committee” 등 관련 위원회에서 다룸
- 미국 연방제 특성상 주의회는 교육 · 보건 · 문화 · 환경 등 광범위한 정책을 주 차원에서 입법 ·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방문일시 : '25. 09. 15. (월) 13:00 ~ 13:30

□ 방문장소 : 24 Beacon St, Boston, MA 02133

□ 방문목적

- 문화예술 분야의 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문화예술기관 지원 정책인 문화예술 분야 회복 지원금(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s) 및 지속적 · 장기적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의 운영 방법 분석

- 긴급 지원금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지원으로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지속가능한 문화경영’을 위한 장기적 자생력 확보 교육프로그램 분석 등 문화예술 기관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

□ 면 답 자 : 트램 T. 응우옌 (Tram T. Nguyen) 하원의원

□ 질의·답변

Q. 공교육 및 노동권 강화를 위한 매사추세츠주의 구체적인 추진 정책은?

A. 교육 예산 증대 및 교사 처우 개선 확대, 교육 인프라 개선 투자 및 노동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보장, 노동조합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보

Q.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및 최근 미국 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들 등록 자격 박탈 등 퇴출한 정책에 대한 입장

A. AI 기반 변화에 대비한 인력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시급함. 노조와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강조. 주·연방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 일자리 창출에 주력 및 학교와 연계해 유학생 등 국제 인재를 확보. 다만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 권한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해외 유학생 유치와 해외 투자 유입 등 주요 재원에 걸림돌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

Q. 현재 매사추세츠주의회의 주요 관심과 제출된 법안에 대해?

A.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에식스 18구역의 경우, 교통, 주거, 경제 개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 화이자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기술 산업 육성 등이 핵심 과제임.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이민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출됨

Q.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기초 예술인을 위한 환경적 생태계 조성이 가장 큰 화두임. 이에 대한 예술술의 지원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영감은 무엇을 통해 얻게 되는지 궁금함

A. 성장 과정과 변호사 활동 경험으로 인해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노동자 인권, 공교육 기반조성 등에 관심 있음. 이에 더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많음

Q. 트램 의원님의 주요 관심 정책과 관련 인종 차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생각은?

A. 이민자 정착 지원임. 신미국인 사무소(New American office) 운영 및 흑인, 아시아인들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을 통한 인종에 따른 지원 정책 추진

Q. 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에서 문화예술기관에 지원한 문화예술 분야 회복

지원금(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s) 및 지속적·장기적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의 운영 방법은 무엇인지?

- A. 긴급회복지원금은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단체·개인에게 일반재원(unrestricted) 형태로 신속히 지급하여 임대료·인건비·운영비 등 현장 수요에 바로 대응함. 대규모 주 예산과 팬데믹 구제 기금(CvRF 등)을 활용해 수십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뤄짐. 지속적·장기적 운영 보조금은 다년(복수년)·일반재원 성격의 운영 지원으로 설계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인건비·관리비 등 기본 운영)을 보장함
- Q. 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에서 문화예술기관에 지원할때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 A. 경기 변동이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문화예술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 안정화 기금(Cultural Stabilization Fund)’을 전용 상시 기금으로 설치하고, 안정적인 재정 플랜을 제도화함
- Q. ‘지속가능한 문화경영’을 위한 장기적 자생력 확보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지?
- A. 매사추세츠주의 예술경영 교육은 예술 경영 교육을 단순한 ‘강좌’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 전문 멘토링, 네트워킹, 재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연계 시스템으로 운영. 이는 보조금 지급→역량 강화→장기적 자생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특히 소규모 기관들도 장기간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

□ 기관방문 사진



단체사진



질의응답



기념품 교환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매사추세츠주가 서울시와 공유하는 유사점으로는 공교육 강화 및 노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확보, 첨단 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방향, 다문화·이민자 수용 기반의 사회정책,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구체적 사례와 추진 과정을 청취하였음

< 공교육 및 노동권 강화 >

-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내에서도 높은 공교육 투자 비중을 유지하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사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교실 환경 개선, 첨단 교육 장비 보급, 저소득층 학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있음
 -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제도적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양극화 속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매사추세츠의 교육 투자와 노동권 강화를 연계한 포용적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AI)과 노동시장 대응 >

-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직업 전환 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하며 노조와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
 -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하여 탄소 중립 및 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교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음
 - 한편, 연방정부 차원의 유학생 정책 제한이 지역 산업 및 교육 투자 유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 역시 글로벌 인재 유치에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문화예술 및 예술인 권리 보호 >

- 매사추세츠주는 팬데믹 이후 문화예술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Cultural Stabilization Fund라는 전용 기금을 설치하여 경기 변동에도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음

- 예술경영 교육 역시 단순한 강좌가 아니라 교육 + 멘토링 + 네트워킹 + 재정지원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어, 중소규모 예술기관도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도 시사점이 큰바, 단순 보조금 지원에서 나아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장기적 자생력 확보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다문화·이민자 정책 및 인종차별 해소 >

-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해 신미국인 사무소(New American Office)를 운영하며, 흑인 및 아시아인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인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이민 2세나 청년층의 사회적 정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매사추세츠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의정활동 활용방안 >

-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 노동권 강화, 문화예술 지원의 안정성 확보, 이민자 정책 개선 등 분야별 해외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입법과 정책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특히, 서울형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선 및 노인·청년을 아우르는 생활체육·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할 때 매사추세츠주의 입법적 경험을 활용해 설득력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관방문 : 뉴욕주의회 (New York State Legislature)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뉴욕주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주로, 면적은 약 141,300km²이며 인구는 약 1,900만 명에 달함.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가 주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 전역에 다양한 역사적 명소와 자연 경관이 있음. 미국 독립 전쟁과 관련된 유적이 많고, 예술과 교육의 중심지로도 잘 알려져 있음

○ 주요 특징

- 뉴욕주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Assembly)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상원은 63명, 하원은 1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의원 임기는 2년이며, 정기적으로 선거가 치러짐.
- 의회 내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가 교육, 보건, 교통,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과 정책을 담당함.
- 서울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유사 역할을 하는 뉴욕주 의회 상원은 문화·관광·공원·레크리에이션위원회이며, 하원은 관광·공원·예술·스포츠개발위원회임
- 뉴욕주는 다양한 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법 활동이 활발함.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ysenate.gov>

□ 방문일시 : '25. 09. 16. (화) 11:00 ~ 12:00

□ 방문장소 : 136-20 38th Ave, Suite 10A Flushing, NY 11354

□ 방문목적

○ 문화·관광 정책 관련 입법·예산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 I♥NY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도시 브랜딩을 보여준바, 뉴욕주의 브랜딩 구축과 활용 사례를 직접 분석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법적 토대를 어떻게 설계하고 하위 정부와 기능을 조정하고 있는지 비교·연구

- 향후 한미 지방의회 간 교류 기반 마련 및 국제 문화정책 연계 가능성 검토
- 뉴욕주의 예술 분야 공식 기금 기관인 뉴욕주예술위원회가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갖는 장단점 분석

□ 면 담 자 : 론 김 하원의원

□ 질의·답변

- Q. 서울 역시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공교육과 주거 문제는?
- A. 지역구인 플러싱은 노인 주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며, 이는 뉴욕 전역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 과제며, 지역 사무실에서는 매년 약 3만 건 이상의 주거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입법 활동과 병행해 민원 행정도 수행하고 있음
- Q. 공교육과 주거 문제는 예산 부족 문제가 없는지? 및 한국 내 대형 공연장 건립 중인데 뉴욕 현황은?
- A. 예산은 늘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노인 사망 문제의 어려움과 경험으로 현재는 문화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한국 문화 확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 뉴욕에서도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성장이 뚜렷하기에 향후 문화 협력의 가능성이 높음
- Q. 도시 브랜딩 전략에 대해 설명해달라?
- A.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슬로건은 이미 세계적 브랜드가 됐지만, 오히려 안일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울처럼 역동적으로 브랜드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서울 브랜드의 소개와 잦은 교체에 대해 뉴욕과 서울은 다르지만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음
- Q. 서울시의회와 뉴욕주의회 간 협력 가능성?
- A. 뉴욕과 서울은 닮은 점이 많음. 현재 반이민 정책으로 교류가 위축된 점은 아쉽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 졌음.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한미 지방정부 차원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함
- Q. 론 김의 정치적 동기 및 정책 지향성은?
- A. 어린 시절 이민자 가정에서 집 파산과 가난을 겪으며 기본 생활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경제가 안정될 수 있음. 급여 지원 정책과 주거 안정 대책을 통해 계급 이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다문화 정책에 대해 뉴욕 플러싱은 수백 개 언어가 공존하는 대표적 다문화 도시이기에 이민자 수용이 곧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지만, 현 행정부가 이를 무시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Q. I♥NY 슬로건 등 도시 브랜드 성공에 이르기까지 이뤄진 정책적·입법적 노력은?

A. 1970년대 뉴욕시는 재정 위기와 범죄율 급증으로 도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위기를 겪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과 입법적 지원을 함. 관광 진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도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함. 관광청을 중심으로 관광 및 문화예술 관련 홍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특히, 브랜드 사용을 직접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I♥NY'와 같은 슬로건이 일관성 있고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단순히 홍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브로드웨이 공연 예술 지원, 공공 안전 강화, 도심 환경 개선 등 도시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임

Q. 뉴욕주예술위원회(NYSCA)의 설치 배경과 기금 기관으로서 가지는 운영 방식의 장단점은?

A. 뉴욕주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는 1960년대에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州) 내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설립됨. 운영 방식의 장점으로는 주정부 예산 배정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 가능. 민간 후원 유치와 연계하여 재정적 과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반면 단점으로는 주정부의 정치적 또는 재정적 상황에 따라 연간 예산 규모가 크게 변동될 수 있음, 행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예술 현장의 신속한 수요 대응이 어려움. 또한, 자금 배분이 대규모, 기존 기관에 편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서울시가 공공 문화 기금 마련을 추진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임

Q. 뉴욕주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문화 정책 및 입법 권한 역할 분담 현황은?

A. 뉴욕주는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뉴욕시 등) 간에 역할과 권한이 비교적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으며, 이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 주정부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의 기본 법제와 예산 틀을 마련함. 광역 차원의 전략 수립이나 대규모 기금(NYSCA 등)의 배분과 같은 거시적, 제도적 기반을 담당함. 반면 뉴욕시는 주정부의 정책적 기반 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 및 운영에 중점을 둬. 자체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지역 축제 및 공연 기획,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현장 사업을 추진함.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도 이러한 협력 구조를 참고하여,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현장 집행 및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는 자치구 중심으로 하는 역할 조정을 모색할 수 있음

Q. 주의회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구조는?

A. 뉴욕주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추고 있음. 상임위원회 공청회 개최, 지역구 의원 사무실 운영을 통한 민원 청취, 온라인 의견 제출 창구 등을 제도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지역구 의원들은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음.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주민 및 단체가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서울시의회 역시 정례 공청회 제도화, 지역별 타운홀 미팅 활성화,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방문 사진



단체사진



질의응답



기념품 교환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뉴욕주는 서울시와 유사하게 대도시가 직면하는 주거, 교육, 문화, 도시 브랜딩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통해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함. 특히 주거 안정화 정책, 공교육 강화 방안, 도시 브랜드 관리 전략, 그리고 문화예술 재정지원시스템 등은 서울시의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벤치마킹할 만함

< 주거 문제와 공교육 >

- 뉴욕 대도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병목 현상을 겪고 있음. 플러싱 지역 등에서는 노인 주거 문제가 특히 심각한 현안임. 서울시 역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므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 지역구 의원 사무실이 연간 수만 건의 주거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뉴욕의 사례처럼 현장 밀착형 민원 행정 및 입법 연계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산과 한국 문화 확산 >

- 문화·교육 분야 예산이 항상 부족함.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노인 사망 문제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함. 문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포함한 다문화 확산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형 공연장 건립 정책은 뉴욕과 같은 세계 도시의 문화 수요와 국제적 문화 교류 가능성을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타당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 브랜딩 전략 >

- “I♥NY“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안일함에 대한 내부적 우려가 존재함. 서울은 반대로 잦은 브랜드 교체를 통해 역동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
 - 서울시는 뉴욕 사례를 참고하여 브랜드의 지속성과 변화를 조화시키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함. 단순한 로고 디자인을 넘어 정책, 입법 활동과 연계된 종합적인 도시 이미지 관리가 필수적임

< 문화예술 지원체계 >

- 뉴욕주예술위원회(NYSCA)는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광범위한 예술 지원이라는 장점을 가짐. 다만, 정치·재정 상황에 따른 예산 변동성과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단점도 명확함
 - 서울시가 공공 문화 기금을 마련할 시, 재원의 안정성과 배분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가 최우선 과제

<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

- 주정부가 법제와 예산의 큰 틀을 마련하고, 뉴욕시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집행하는 명확한 구조를 운영
 - 서울시는 정부-시-구 간의 권한 분담을 조정. 법적 및 재정적 기반은 시가 담당하고 실질적인 현장 집행은 구가 담당하는 협력 모델 참고

< 주민 의견 수렴 구조 >

- 뉴욕주의회는 상임위원회 공청회, 타운홀 미팅, 온라인 의견 제출 창구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가 특징임
- 서울시의회도 정례 공청회와 지역별 타운홀 미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정책적 시사점 >

- 뉴욕과 서울은 다문화 환경, 대도시 주거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유사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는 뉴욕의 사례처럼, 주거와 교육 문제의 입법·행정 연계, 안정적 문화예산 구조 마련, 브랜드 전략의 지속·변화 조화, 시민 의견 수렴 구조 제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서울의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음

기관방문 : 카네기홀(Carnegie Hall)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카네기 홀은 1891년 뉴욕에 개관한 세계적 공연장으로,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재즈·팝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며 세계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 기부와 대규모 기금 운용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와 신예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글로벌 음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

- 자체 기획공연 개최 및 외부 단체에 대관공연을 제공 등 다양한 예술 콘텐츠 수용
- ‘카네기홀+’ 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기반 수익사업 추진
- 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전 연령층 대상 폭넓은 음악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예술 참여 확대 등 문화적 포용성 증진
-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글로벌 아티스트 협업을 통한 국제적 예술 네트워킹 구축
- 홈페이지 : <https://www.carnegiehall.org>

□ 방문일시 : '25. 09. 16. (화) 15:00 ~ 16:30

□ 방문장소 : 57th Street and, 7th Ave, New York, NY 10019

□ 방문목적

○ 운영 및 재정 자립 방안 모색

- 카네기홀의 민간 기부·투자기금 중심 재정 구조와 ‘카네기홀+’ 온라인 스트리밍 등 수익 다각화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 및 재정 자립률 제고 방안 검토

○ 문화적 역할 및 네트워킹 확대

- 카네기홀의 자체 기획공연, 전 연령 대상 음악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 서울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 및 예술 교류 활성화 방안 착안

□ 면 답 자 : Richard Malenka(행정책임), Synneve Carlino(커뮤니케이션),
Sarah Johnson(교육), Susan J. Brady(개발)

□ 질의·답변

- Q. 서울시향은 공적 자금에 기반해 운영되는데 반해, 카네기홀은 민간 후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바, 운영 재원 마련 방안은?
- A. 단순한 수익 보전이 아닌 기업가 중심의 후원 네트워크와 소셜 프로그램을 통해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Q. 130년 명성 유지와 아티스트 네트워크 관리 비결은 무엇인지?
- A.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며 젊은 아티스트에게 기회를 주고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을 돕고 있음
- Q. 젊은 아티스트 중심의 맞춤형 지원은 지원 대상이 너무 제한적인 것 아닌지?
- A. 뉴욕 공립학교와 협력해 초등학생부터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무료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모금 덕분임. 또한 음악은 청소년, 병원, 전 세계 60여 기관과 연결돼 있으며 아이·부모·가족 관계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지원 대상이 협소하지 않고 폭넓다고 할 수 있음
- Q. 서울시향이 13년 만에 11월 카네기홀에서 다시 공연을 하는데 이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연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방안은 무엇인지?
- A. 시향 공연프로그램은 단순 공연을 넘어 티켓 판매와 매출 비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기대를 하고 있음. 손열음, 임윤찬, 조성진 등 한국 아티스트 방문이 잦고, 한국은 젊은 음악가를 배출하는 국가이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
공연 접근성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학생·군인 할인, 10달러 티켓, 무료·할인 관람 기회 확대를 운영 중이며 이는 민간 후원 덕분에 가능함
- Q. 매년 여름 시즌에는 두 달여간 개보수를 위해 공연을 중단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무엇인지?
- A. 매년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조 시설의 현대화임. 130년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열음과 선풍기를 활용한 적이 있었음. 작은 소음도 관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객석 바닥에 공조시설을 설치하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Q. 카네기홀의 음향 관리 방식 및 운영철학은 무엇인지?
- A. 1891년 지어진 홀은 자연 음향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현재는 전자 음향 설비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운영 철학은 음악을 통한 위대한 변화가 존재 이유이며 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엑셀런스(Excellence)’ 라고 할 수 있음

Q. 구독형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Carnegie Hall+’ 도입 후 관람객의 반응이나 매출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존 현장 공연들과 상충하는 문제 여부 및 관리 방안은?

A. ‘Carnegie Hall+’는 카네기홀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지역의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수익 모델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함. 현장 공연과의 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연의 실시간 스트리밍보다는 녹화된 공연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 관객의 경험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관객에게 카네기홀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현장 공연과 스트리밍 콘텐츠의 콘텐츠 전략을 차별화하여, 두 채널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기관방문 사진



단체사진



질의응답



카네기홀 공연장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카네기홀은 민간 후원과 기업가 중심의 네트워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해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젊은 아티스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130년 명성을 유지하고 아티스트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음. 서울시향과 달리 민간 중심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운영·재정·교육·네트워킹 전략을 벤치마킹할 수 있음

< 운영 재원 마련 및 후원 전략 >

- 단순한 수익 보전이 아닌, 기업가 중심의 후원 네트워크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연의 질과 관객 경험을 동시에 강화함

< 아티스트 지원 및 네트워킹 관리 >

- 젊은 아티스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뉴욕 공립 학교와 연계한 무료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병원, 전 세계 60여 기관과 연결되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함
- 이러한 체계는 아티스트 네트워크 유지와 장기적 명성 확보의 핵심 요소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연 접근성 >

- 카네기홀은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사회 공헌의 역할을 수행. 후원 기반의 재원을 활용하여 학생, 군인 등을 위한 할인 프로그램, 10달러 저가 티켓 및 무료 또는 할인 관람 기회 제공으로 문화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함

< 시설 관리 및 운영 철학 >

- 매년 여름 시즌 개보수 기간에는 공조 시설 현대화 등 관객 편의 향상과 외부 진동 최소화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짐
- 음향 관리 및 운영 철학은 자연 음향 설계와 전자 음향 설비를 병행하며, ‘엑셀런스(Excellence)’를 핵심 가치로 음악을 통한 위대한 변화를 추구함

< 디지털 콘텐츠 및 스트리밍 전략 >

- 구독형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Carnegie Hall+’)를 운영하여 현장 관람이 어려운 지역의 관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기관 수익 모델 다각화
- 현장 공연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화 중심 콘텐츠를 운영하고, 두 채널 간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

< 정책적 시사점 >

- 서울시향 등 공연장 운영시 민간 후원 기반 재원 마련, 젊은 아티스트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크 관리, 사회적 약자 접근성 확보,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카네기홀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 가능
- 이를 통해 공연장 운영 활성화, 재정 자립률 제고, 시민 문화 향유 확대 등 정책적 시사점을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음

기관방문 : 뉴욕시의회 (New York City Council)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미국 뉴욕시의 입법 기관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임
- 의회는 뉴욕시의 예산 심의·승인, 조례 제정, 행정 감독을 담당하며, 뉴욕시장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의회 본청은 맨해튼에 위치한 시청사(City Hall)에 위치하고 있음

○ 주요 특징

- 총 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의원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선출됨
- 의원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단 시장 및 시 전체 선출직과 동일한 임기 제한 규정이 적용됨
- 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상임위원회 배정을 주도하는 권한을 가짐
- 상임위원회는 교육, 교통, 주택,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정책 검토와 청문회 기능을 담당함
- 서울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유사하게, 뉴욕시의회에는 문화위원회(Committee on Cultural Affairs, Libraries, and International Intergroup Relations)가 설치되어 있음
- 다문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종, 이민, 성별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
- 공식 홈페이지: <https://council.nyc.gov>

□ 방문일시 : '25. 09. 18. (목) 11:30 ~ 12:30

□ 방문장소 : 250 Broadway, New York, NY 10007

□ 방문목적

- 뉴욕시의회의 문화·관광 정책 관련 입법·예산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 뉴욕시는 브로드웨이, 메트로폴리탄 등 세계적 문화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로, 문화예산 편성·집행 및 공공문화시설 운영 방식이 서울시 정책 개선에 유용한 비교 사례가 됨

- 2024년 관광객 6,430만 명, 관광 지출 약 510억 달러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회복력이 뛰어나 도시 관광 정책 참고 가치가 큼

- 뉴욕시의회의 문화·관광·체육 관련 입법 및 예산 심의 체계를 분석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개선에 반영

○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와 민관 협력 사례를 확인하여 서울시 문화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활용

□ 면 답 자 : 산드라 황·린다 이(Linda Lee)·줄리 원(Julie Won) 의원

□ 질의·답변

Q. 뉴욕시의회의 주거정책과 도서관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달라?

A.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큼. 특히 고령층은 삶의 터전을 떠나기 원치 않고,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보다 개발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는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정책을 추진함. 도서관 정책의 경우, 도서관을 단순한 자료 열람 공간이 아닌 지역 사회의 핵심 거점이자 교육 및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둠

Q. 청년 예술인과 소규모 문화기관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A. 뉴욕에는 크고 작은 문화기관이 많음. 특히 플러싱 타운홀은 지역 사회와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시의회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간 개보수 비용도 지원함. 또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소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결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음. 뉴욕은 예술교육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도록 지원함. 특히 플러싱과 같은 아시아계 밀집 지역에서는 한국 및 중국 문화를 세대 간에 전승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함. 이외에도 브로드웨이의 공연 기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공연을 가르치는 ‘수카사(SU-CASA)’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Q. 뉴욕의 외국인 관광정책 사례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뉴욕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라 공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보다는 도시의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 문화와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영화·TV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확산시킴

Q. 뉴욕에서 아시아인 의원들이 차별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A.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아시아계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이 있었음. 또한 영어 장벽으로 의료·행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에 언어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느낌. 실제로 한국계 주민이 병원에서 언어 문제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함.

이를 계기로 공공 기관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섬

Q. 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지속적 정책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나 시민 자문단과 정례적으로 협업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A. 문화·예술, 환경, 교육 등 주요 위원회는 공청회, 라운드테이블 회의, 공적 자문 그룹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 과정을 입법 검토나 정책 개선에 반영함. 특히 문화위원회는 예술기관 관계자, 지역 커뮤니티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나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음

Q. 뉴욕시의회의 문화·관광·체육 관련 입법에 대해 설명해달라?

A.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장·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지원과 예술교육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브랜드 관리, 국제행사 유치,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 관한 조례와 예산을 마련함. 또한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 기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청소년·취약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관방문 사진



단체사진



면담의원



질의응답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뉴욕시의회의는 주거 안정, 청년 예술인 지원, 다문화 공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도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서울시의회의는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거·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정책과 주민 갈등 관리 >

- 뉴욕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고령층 주민들의 반발과 개발 이익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정책을 추진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도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서울시 역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법적·행정적 장치와 공공 소통 구조를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예술인 및 소규모 문화기관 지원 >

- 뉴욕시는 플러싱 타운홀 등 지역 문화기관에 보조금과 공간 개보수 지원을 제공하고, 젊은 예술가에게는 소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또한 브로드웨이의 ‘수카사(SU-CASA)’ 프로그램처럼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공연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는 청년 예술인과 지역 기반 문화기관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과 교육 연계형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정책과 도시 브랜드 관리 >

- 뉴욕은 별도의 관광객 유치 정책보다 도시 매력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있음. 영화·TV 제작 지원, 예술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적 관광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서울시도 대규모 관광 이벤트 유치보다 장기적 도시 매력과 문화자산 활용을 통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언어정책 >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언어 장벽 문제가 심각했으며, 이를 계기로 뉴욕시는 공공기관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함
-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해 공공서비스 전반에 다국어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전문가 및 시민 자문 구조 >

- 뉴욕시의회는 공청회, 라운드테이블 회의, 자문 그룹 등을 통해 전문가·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며,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 정책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도 정례 협의체를 마련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예산·입법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체육 입법 >

- 뉴욕시의회는 공공문화시설 운영 지원, 예술교육 확대, 도시 브랜드 관리, 관광 인프라 개선,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취약계층 체육 참여 확대 등을 입법적으로 추진함
- 서울시의회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국제관광·브랜드 전략 정비, 생활체육과 청년·취약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와 예산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 뉴욕과 서울은 대도시 주거난, 청년 예술인 지원, 다문화 수용, 관광·체육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 과제를 공유함
- 서울시의회는 뉴욕 사례를 참고하여 재개발 과정의 주민 갈등 완화, 청년·지역문화기관 지원 확대, 도시 브랜드 장기 전략 수립, 다국어 행정서비스 강화, 전문가·시민 자문 구조 제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기관방문 : 뉴욕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KCCNY)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1979년 개원하였으며, 미국 내 한국문화를 대표적으로 소개·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뉴욕 맨해튼에 위치하며, 한미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활동

- 한국 전통문화(예술·음악·무용·한식·한글)부터 현대문화(K-팝·영화·디자인·게임·패션 등)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국 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음
- 매년 한국영화제, 전시회, 공연, 강연,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뉴욕 내 주요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 교육·학술 분야에서는 한국어 강좌와 한국학 자료 제공,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세대 교류 기반을 확대
-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미국 내 주요 기관·도시와 협력하여 한국문화주간, 한미문화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www.koreanculture.org>

□ 방문일시 : '25. 09. 17. (수) 14:00 ~ 14:50

□ 방문장소 : 122 E 32nd St, New York, NY 10016

□ 방문목적

○ K-컬처 확산 거점 운영 경험 활용

- 뉴욕한국문화원은 현지 체험형 프로그램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 K-컬처 확산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
- 단순 홍보를 넘어 현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글로벌 문화도시 정책에 시사점 제공

○ 다목적 문화공간 협업 모델 벤치마킹

- 갤러리, 극장,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상권과 협력
- 서울시 복합문화공간(예: 노들섬) 운영·관리 체계 개선 및 지역 문화공간 혁신에 적용 가능

□ 면 담 자 : 김천수 원장, 조희성 전시 감독, 한효 공연 감독

□ 질의·답변

Q. 한국에 비해 기부금 수익이 활발한 이유?

A.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카네기홀 등 주요 문화기관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세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데, 미국은 세액공제 폭이 넓어 회계연도 마감 시기에 기부가 집중되고 있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Q. 서울관광재단과 문화원의 협력 가능성은?

A. 관광공사가 B2B를 맡는다면 문화원은 B2C로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데 집중할 수 있기에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있음

Q. 뉴욕한국문화원 현지 인력 구성은?

A. 젊고 영어에 능숙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 하며, 이제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소비 시장으로서의 K-컬처를 육성해야 함

Q. 뉴욕에서 효과적인 K-콘텐츠에 대해 궁금하며 인기 브랜드는 무엇인지?

A. 한식과 K-뷰티가 대표적이며, 특히 K-뷰티는 아이돌 문화를 따라 체험하는 요소가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음. 이어 K-콘텐츠에서 비롯된 화장법에 대한 관심에서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고 소비 방식 전반으로 번짐. 현재는 체험형 소비가 핵심임. 대기업보다 신생기업 제품도 각광받고 있고, 인플루언서 활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고 있음. 올해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진행한 K-뷰티 행사와 한강라면 콘셉트 행사 등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Q. 문화원의 향후 계획은?

A. 장욱진, 김환기, 백남준 등 한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해 독창적 예술을 알릴 계획임

Q. 서울시 복합문화시설 운영 시, 제안 또는 조언사항은?

A. 뉴욕한국문화원은 갤러리, 극장, 도서관, 미디어월, 요리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을 타깃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K-컬처 플랫폼을 구축함. 또한, 현지 공공·민간 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근 상권 및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음. 지속적인 참여 유도 및 시민 피드백 반응을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시민층의 니즈를 반영하고, 참여 후 만족도 및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시설의 활용도와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음

Q. 지역사회, 현지 문화기관, 예술 단체, 상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식 및 구체적 사례와 향후 과제는?

A. 뉴욕한국문화원은 지역사회, 현지 문화기관, 예술 단체, 상권과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현지 미술관과 협력해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극장 및 공연단체와 연계한 K-팝·한국 전통 공연을 선보이며, 인근 상권과 연계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학교, 대학,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향후 과제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보다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참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성과 측정 체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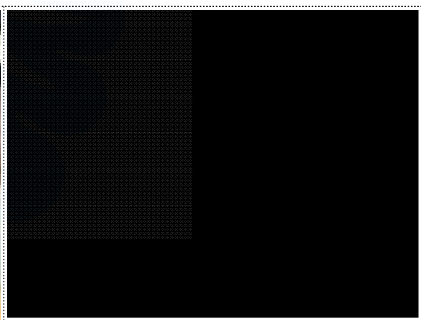
□ 기관방문 사진



단체사진



기관소개



기념품 교환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뉴욕한국문화원은 K-컬처 확산과 현지 시민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선도적 기관으로, 서울시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글로벌 문화도시 정책에 벤치마킹할 만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

< 기부금 문화 및 민간 참여 >

-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카네기홀 등 미국 주요 문화기관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세금 혜택 기반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음.
회계연도 마감 시점에 기부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함

< 서울관광재단과 문화원 협력 가능성 >

- 관광공사가 B2B를 담당할 경우, 문화원은 B2C로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함

< 현지 인력 구성 및 K-컬처 전략 >

- 젊고 영어에 능숙한 인력을 채용하여 현지 소비 시장 중심의 K-컬처 육성에 집중함
- 한식과 K-뷰티가 대표적 인기 콘텐츠이며, 체험형 소비와 인플루언서 활용이 핵심. 신생기업 제품도 주목받고 있음.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한 K-뷰티 행사, 한강라면 콘셉트 행사 등은 현지인에게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사례임

< 향후 계획 >

- 장욱진, 김환기, 백남준 등 한국 예술가 작품 전시를 통해 창의성을 소개하고, 북중미 월드컵 등 국제 이벤트와 연계한 독창적 예술 홍보 계획을 추진 중임

< 서울시 복합문화시설 운영 제안 >

- 갤러리, 극장, 도서관, 미디어월, 요리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을 타깃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 참여와 공감을 유도함
- 공공·민간 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상권 및 커뮤니티와 연계해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함

- 지속적 참여 유도과 시민 피드백 반영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시민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개선점을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시설 활용도와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네트워크 구축 방식 및 향후 과제 >

- 지역사회, 현지 문화기관, 예술 단체, 상권과의 체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함
- 구체적 사례로, 현지 미술관과 공동 전시회 개최, 극장·공연단체와 K-팝·한국 전통 공연 연계, 인근 상권과 협력한 문화 이벤트 추진, 학교·대학·커뮤니티 센터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음
- 향후 과제로는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참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성과 측정 체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관방문 : 코리아스터디그룹 (Congressional Studies Group on Korea)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연구모임(Congressional Member Organization)으로, 한반도 관련 정책·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의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설립됨
- 미국 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며, 의회 내에서 한국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한미 동맹의 발전,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지역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이해를 높이고 초당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활동

- 정기적으로 의원 대상 브리핑·세미나·포럼을 개최하여 한반도 정세, 한미관계,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
- 한국 정부, 학계, 싱크탱크,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양국 간 협력 현안을 다루는 공청회·간담회를 운영
- 한미 경제·통상 협력, 국방·안보 동맹 강화, 인도적 교류(교육·문화·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초당적 논의를 추진
- 미 의회 내 다른 의원 모임(Caucus) 및 한미 우호 단체와 협력하여 한미관계 증진 행사를 공동 주관
- 연구 성과와 논의 내용을 의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한반도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에 기여
- 홈페이지 : <https://www.congress.gov/>

□ 방문일시 : '25. 09. 19. (금) 10:00 ~ 11:00

□ 방문장소 : 1401 K Street NW (M층) Washington, DC 20005

□ 방문목적

- 한국에 관심있는 미국 전직 상·하원 의원(미국 코리아스터디그룹)과 면담하여 한미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관광, 문화, 체육정책 개선에 반영

□ 면 답 자 : Bart Gordon·John Sarbanes·Barbara Comstock
(前 미하원의원)

□ 질의·답변

Q. 미국 관광객 수요를 더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방안을 제안하십니까?

A. 한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단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파트너십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모시고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며, 자매 도시 관계를 활용한 교류 증진도 고려할 수 있음. 자매 도시 관계를 구축하거나 기존 관계를 발전시켜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

한국전쟁 참전 용사 단체와의 유대감을 활용하여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에 도모함. 미국 내 참전 용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 초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광을 활성화함

Q. 의정활동 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법안은?

A. 학자금 부채 문제 해결 노력임. 문화 밴드나 관광 메뉴 등 다양한 기회가 많다고 언급함. 교수들이 학생들의 졸업 후 높은 빚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공공 서비스 종사자 학자금 탕감 법안이며,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이 대상임. 백만 명 이상의 졸업생이 약 80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탕감을 받음

Q. 한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FMC(Former Members of Congress) 회원 및 전직 의원들은 한미 관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함. 현재의 불안정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굳건하며 긍정적인임. 문화, 관광, 체육 교류가 외교 및 안보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함.

한미 관계는 누가 대통령인지에 중요치 않게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한국 커뮤니티는 한국 독립 기념일 등 축제를 즐기며 많은 사람이 참여함.

친환경차 재단 허가에 대한 감사와 희생,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포함

Q. 국가간 문화 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문화 및 스포츠 교류는 국가 간의 긴밀한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문화, 스포츠, 관광을 통해 강화된 인적 관계는 정부의 긴장 속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음.

문화적 민감성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함

Q. 국내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미국처럼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A. 주요 도시 간 항공 노선 증편을 통해 문화 교류 활성화를 할 수 있음. 여름마다 버지니아 조지아 대학교와 한국 대학 간의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와 교육을 접하게 하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학생들이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미래의 관계 강화로 이어짐

Q. 국제 학생 유치 감소의 미국 경제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국제 학생 감소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 경제 및 사업에 대한 영향이 크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Q. 한미 관계와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한 의견은?

A. 한국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을 이해하는 관문이 될 수 있음. 문화 교류를 넘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Q. 미국 의회에 제안할 게 있다면 해달라?

A.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더 깊이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유학생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입국 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우주 공학 분야에서 외국인 참여 제한으로 인해 국적을 바꾸는 사례가 발생함

□ 기관방문 사진



단체사진



면담자



질의응답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FMC 회원 및 전직 의원들은 한미관계를 굳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문화·관광·체육 교류가 외교 및 안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한국전쟁 참전 용사 단체와의 유대, 자매도시 관계, 청소년 교류를 통한 미래 세대 기반 강화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

< 관광객 수요 확대 전략 >

- 미국 내 단체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한국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도모할 필요 있음
- 자매도시 관계를 구축·발전시켜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 단체와 협력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관광정책과 연계 가능한 실질적 방안임

< 의정활동 관련 벤치마킹 사례 >

- 공공 서비스 종사자 학자금 탕감 법안처럼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영역 종사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 가능
- 특히 청년층의 학자금 부채 문제 해결 경험은 서울시 청년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함

< 문화·체육·관광 교류 전략 >

- 문화·스포츠 교류는 양국 간 긴밀한 유대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 수단임
- 한국 커뮤니티가 미국 내에서 축제, 기념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는 서울시의 다문화 교류 행사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함

< 인재 유출 · 국제학생 문제 >

- 국제 학생 유치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한국의 유학생 정책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에도 참고 가능
- 주요 대학 간 교환 프로그램, 항공 노선 증편 등을 통한 청년 · 학생 교류 확대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추진 가치가 있음

< 향후 계획 및 서울시 적용 가능성 >

- 서울시는 문화 · 관광 · 교육 교류를 연계해 미국 내 파트너십 기반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참전용사 단체 · 대학 · 문화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글로벌 청년 교류 플랫폼을 통해 장기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
- 서울의 글로벌 문화도시 전략을 추진하면서, 문화적 민감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 모델을 개발하고, 미국 내 파트너십 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기관방문 :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한국전쟁(1950~1953)에 참전한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추모·기념 공간임
- 미국 각 지역(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 위치한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은 현지 참전용사 단체, 지방정부, 한인사회가 함께 조성·운영하고 있음
-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한미 우호 관계와 자유·평화의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는 교육적·역사적 의미를 지님

○ 주요활동

- 매년 6월 25일(한국전쟁 발발일), 7월 27일(정전협정 체결일) 등을 전후해 추모식과 기념행사를 개최
- 한국 및 미국 정부, 재외동포 사회, 참전용사 단체가 공동으로 헌화식, 추모비 제막식, 평화 기원 행사를 진행
-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화·예술 행사, 기념공원 정비,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교류·추모 활동을 지속
- 일부 공원에는 전몰자 명단, 전투 장면 조형물,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설치되어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줌
- 홈페이지 : <https://www.nps.gov/kowa/>

☐ 방문일시 : '25. 09. 19. (금) 15:20 ~ 16:00

☐ 방문장소 : 900 Ohio Dr SW, Washington, DC 20024

☐ 방문목적

- 추모·기념사업 사례를 공유받고, 문화·관광·체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
- 참전용사 교류 및 청년 참여, 디지털 콘텐츠 활용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시의 평화·역사 관광자원화 정책에 활용

○ 체육·스포츠와 기념사업 연계를 통한 시민 참여 및 한미 우호
증진 방안을 모색

□ 면 답 자 : 리처드 딘(Richard W. Dean, II) 부이사장

※ 헌화식 참석 : 재미대한태권도협회(KTA in USA) 권기문 회장, 김양식·양광철
부회장, 공대식 전무이사

□ 질의·답변

Q. 스테인리스 군인 조각상의 의미는?

A. 스테인리스 군인 조각상 19점이 세워져 있음. Frank Gaylord가 제작한 초대형 조형물로,
미군 각 군(육군 14명, 해병대 3명, 해군 1명, 공군 1명)을 대표하는 병력 단위를 표현함.
반사벽에 반사되어 총 38명으로 보이도록 설계하여 38선을 상징함

Q. 유엔 벽(UN Wall)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유엔 벽(UN Wall)은 기념비 한 벽면에 한국전 참전 22개국의 국명을 새겨 두었으며,
“Freedom Is Not Free” 라는 메시지가 전달됨

Q.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이 세워진 경위에 대해 설명해달라?

A. 2016년 10월 7일, 오바마 대통령이 Public Law 114-230 (Wall of Remembrance Act)에
서명해 기념비에 희생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해 2021년 5월 21일
KWVMF 주관으로 착공식을 개최함. 2022년 7월 27일, 한국전 정전 69주년 기념일에
맞춰 헌정식을 진행하였고, 36,634명의 미국 참전자와 7,174명의 KATUSA 한국 참전자
이름이 새겨진 벽을 완공함

Q.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주요 기념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서울시와 같은 해외 도시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A. 매년 추모식과 기념행사,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청년층을 위한 역사 교육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서울시와 같은 해외 도시는 이와 연계해 문화·예술 공연, 전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전의 의미를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우호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협력할 수 있음

Q.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에 문화·예술 요소(공연, 전시, 스토리텔링 등)를
접목한 사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A. 참전용사 추모행사에서 음악 공연이나 추모 전시, 당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진행함. 단순한 역사 교육을 넘어 시민과 청년 세대가 전쟁의 의미를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기억을 공유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음. 또한 문화·예술적 접근은
기념행사의 대중적 참여를 높이고, 전쟁의 교훈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기여함

- Q. 한국과 미국의 도시·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국전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 교류 사업은 무엇인지?
- A. 참전기념관 연계 교류 전시, 양국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전용사 추모 행사에 맞춘 문화예술 공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사업은 한국전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계승하고 양국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Q. 한국전쟁 관련 기념관이나 기념비 방문이 참전용사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자원화한 사례가 있는지?
- A. 기념관과 기념비 방문을 단순한 추모의 공간을 넘어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옴. 기념비 주변에 역사 해설 프로그램과 전시를 결합하거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일반 관광객도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세대의 방문객이 능동적으로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변모
- Q. 한국전 참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태권도 등 한·미 우호를 상징할 수 있는 체육 교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A. 태권도와 같은 체육 교류 활동이 한·미 우호를 기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 태권도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스포츠이며 평화와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어, 참전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와 연계할 경우 젊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역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 또한 체육 교류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한·미 간의 유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Q.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메시지를 문화적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A. 전통 공연, 기획 전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문화적 방식을 활용함. 단순한 역사 사실 전달을 넘어 예술적 표현을 통해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함. 이를 통해 기념의 메시지가 단순한 일회적인 추모를 넘어 살아 있는 역사 교육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

□ 기관방문 사진



단체사진



헌화식



질의응답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 요소들로 구성됨. 스테인리스 조각상은 미군 각 군을 대표하며 38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유엔 벽은 22개 참전국 이름 및 “Freedom Is Not Free” 라는 핵심 메시지가 새겨 있음.
추모의 벽에는 36,634명의 미국 참전용사와 7,174명의 카투사(KATUSA)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져 있어 후대에 역사적·교육적 의미가 큼

< 문화·예술을 통한 기억 공유 >

- 재단은 참전용사 추모행사에 음악 공연, 전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시민과 청년 세대가 전쟁의 의미를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기억을 공유하도록 함. 이를 통해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고,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함

<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 >

- 전시,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구상함.
이는 양국 시민 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서울시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문화·예술 공연, 전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평화와 우호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기념 공간의 관광자원화 전략 >

- 기념관과 기념비를 단순 추모 공간이 아닌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
역사 해설 프로그램과 전시를 결합하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일반 관광객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 체육·스포츠 연계 및 문화적 메시지 전달 >

- 태권도 등 체육 교류 활동을 참전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젊은 세대에게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한·미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전통 공연, 전시,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적 방식을 활용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자연스럽게 역사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함

< 향후 활용 가능성 >

- 서울시는 참전용사 단체와 문화기관, 대학과 연계해 수요 맞춤형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 자원을 활용한 평화·역사 교육의 장이자 글로벌 청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미 교류 모델을 마련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 할 수 있음

현장방문 : 프리덤 트레일 (Freedom Trail)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 무료

○ 개 요

-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역사 탐방로로,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된 16개의 역사적 장소를 연결하는 총 4km 길이의 도보 코스임
- 트레일은 1951년에 시작되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방문하며 미국의 독립 역사와 혁명 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경로를 따라 보스턴 커먼(Boston Common),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 파뉴일홀(Faneuil Hall), 올드 노스 처치(Old North Church), 폴 리비어 하우스(Paul Revere House) 등 주요 역사적 건물과 기념지가 포함되어 있음
- 트레일은 빨간 벽돌 또는 페인트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손쉽게 따라갈 수 있으며, 역사 해설 가이드 투어나 오디오 가이드 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함
- 프리덤 트레일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미국 독립 역사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문화적 가치가 높음
- 홈페이지 : <https://www.thefreedomtrail.org/>

□ 방문일시 : '25. 09. 14. (일) 14:00 ~ 15:30

□ 방문주소 : 139 Tremont St, Boston, MA 02111

□ 방문목적

- 보스턴의 넓은 자연·역사·과학·철도 재활용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파악
- 서울시는 현재 약40여개의 도보 투어 코스를 운영중인데, 서울 도보 투어 코스를 더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장방문 사진



단체사진



단체사진



단체사진

□ 방문내용

< 프리덤 트레일의 역사문화 >

-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역사 탐방로로,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된 16개의 주요 역사적 장소를 연결함
 - 보스턴 커먼(Boston Common),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 파뉴일홀(Faneuil Hall), 올드 노스 처치(Old North Church), 폴 리비어 하우스(Paul Revere House) 등 미국 독립혁명의 상징적 건물과 기념지가 포함되어 있음
 - 트레일은 붉은 벽돌 또는 페인트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방문객이 경로를 쉽게 따라가며, 역사 해설 가이드 투어나 오디오 가이드 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함
- 프리덤 트레일은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걸으며 미국 독립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임

< 서울의 도보 관광과 비교 >

- 서울의 도보 투어 코스(익선동, 연트럴파크, 성수동 카페거리 등)는 젊은 세대 중심의 방문이 많으나, 세대를 아우르는 역사·문화 체험 요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골목과 거리의 고유 콘텐츠와 스토리 개발이 부족할 경우 관광 수요 유지가 어려우며, 젠트리피케이션과 유행 변화에 따라 도보 관광지의 지속성이 위협받음

< 경관과 관광 경험 조성 >

- 프리덤 트레일은 각 유적지 간 거리와 리듬을 최적화하여, 5~10분 간격으로 포토 스팟, 작은 쉼터, 전시 안내판 등을 배치하고 있어 걷는 동안 지루함 없이 학습과 체험이 가능함
- 시각적 표식(붉은 벽돌 라인)을 통해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고,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도록 유도함
- 서울 역시 한강, 남산, 인왕산 등 경관 명소가 풍부하나, 도보 관광 코스와 쉼터,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체계적 구성이 부족함

< 주요 확인사항 >

- 경로·테마 단순화 및 스토리텔링 강화
 - 서울 도보 투어 코스를 각 코스마다 하나의 강력한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
- 도보 경로 시각적 표식 도입
 - 프리덤 트레일처럼 붉은 벽돌 라인 등으로 이동 경로 명확화
- 주요 지점 간 거리·리듬 최적화
 - 포토 스팟, 작은 쉼터, 전시 안내판 배치를 통해 도보 체험의 몰입감 향상

현장방문 : 뉴욕 공공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뉴욕 공공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 / 무료입장

○ 개 요

- 1895년 설립되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공 도서관 시스템 중 하나로,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Bryant Park)와 플래그십 도서관인 스티븐 A. 슈워츠먼 빌딩(Stephen A. Schwarzman Building)을 중심으로 운영됨
- 도서관은 5천만 권 이상의 장서와 희귀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지도, 사진, 필사본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함
- 건물은 1911년에 완공되었으며, 장대한 르네상스 양식 건축과 두 마리의 유명한 사자상(Patience and Fortitude)이 입구를 지키고 있음
- NYPL은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전시, 강연, 워크숍, 디지털 자료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지식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홈페이지 : <https://www.nypl.org/>

□ 방문일시 : '25. 09. 17. (수) 16:00 ~ 17:30

□ 방문장소 : 476 5th Ave, New York, NY 10018

□ 방문목적

- 뉴욕 공공도서관은 광범위한 장서와 자료, 다양한 시민 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의 주요 공공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 도서관의 공간 구성, 자료 관리, 시민 접근성 확보, 전시·강연·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탐방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원형 보존, 시민 참여 확대, 문화·교육 콘텐츠 강화,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사진



단체사진



내부 현장 탐방



도서관 내부 전경

□ 방문내용

< 뉴욕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 역할 >

-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NYPL)은 방대한 장서와 희귀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강연,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스티븐 A. 슈워츠먼 빌딩을 중심으로 한 플래그십 도서관과 지점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접근 가능
 - 자료 열람, 오디오·디지털 가이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층 학습과 체험이 가능함
- NYPL은 단순 자료 제공을 넘어 시민 참여와 학습, 문화 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 공공도서관 운영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모범 사례임

< 서울의 공공도서관과 비교 >

- 서울의 주요 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은 자료 제공과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어 있으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 디지털 학습 체험이 통합된 사례는 제한적임
- 도서관 공간과 콘텐츠를 시민 친화적·참여형으로 구성하지 않을 경우, 방문객 유입과 지속적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체험 최적화 >

- NYPL은 열람실, 전시 공간, 강연 공간, 디지털 학습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도서관 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서울 역시 도서관을 단순 열람 중심이 아닌, 전시·체험·학습·휴식 공간과 연계하여 시민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확인사항 >

-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영
 - 열람, 전시, 강연, 디지털 학습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민 참여와 체험 강화
- 시민 접근성과 체험 편의성 확보
 - 안내 표지, 동선, 휴식 공간 등 방문객 편의를 고려한 설계
-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시설 운영
 - 디지털 자료, 교육·문화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연계하여 방문객의 반복 이용과 참여 유도

현장방문 : 미국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

《 현 장 개 요 》

○ 방문지정보

- 방문지명 : 미국 국회의사당 (United States Capitol)
- 워싱턴 D.C. / 사용 면적 약 16만㎡

○ 개 요

- 미국 국회의사당은 1793년 건립이 시작되어 수차례 확장과 개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미 의회 상·하원이 입법 활동을 하는 상징적 건물임
- 돔과 기둥으로 대표되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로,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음
- 의회 도서관, 국회 사무실, 전시 공간 등이 인접해 있어 방문객은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이 가능함
-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미국 역사와 의회의 역할을 소개하는 전시와 해설을 통해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제공함
- 국회의사당 앞 내셔널 몰(National Mall)과 연결되어 있어, 링컨기념관, 워싱턴기념탑 등 주요 기념지와 함께 관광 동선을 이루고 있음
- 홈페이지: <https://www.visitthecapitol.gov>

□ 방문일시 : '25. 09. 19. (금) 13:30 ~ 15:00

□ 방문주소 : 20004 District of Columbia, Washington

□ 방문목적

- 서울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DMZ, 도라산 등 정치적 의미가 있는 관광지가 주요 방문지로 자리 잡고 있음
-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도 정치·민주주의적 요소를 관광자원화하고, 글로벌 관광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히 광화문과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 상징성을 공유하므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회의사당의 관광적 매력과 인프라를 참고

□ 현장방문 사진



의사당 앞 단체사진



의사당 회의장



마크비시 의원 사무실

□ 방문내용

< 미국 국회의사당의 정치문화 >

- 미국 국회의사당(U.S. Capitol)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건축물로, 입법부의 활동 공간이자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 명소임
 -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내부 투어와 전시관, 야외 광장을 통해 미국 정치제도의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음
 - 국회의사당 돔과 내·외부 건축미는 물론, 광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시민 행사와 집회는 민주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회의사당은 정치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이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 정치문화 관광지임

< 서울의 정치·민주주의 관광과 비교 >

- 서울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배경으로, 도라산, DMZ 등 정치·지정학적 의미가 있는 장소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요 명소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 시내 도보 관광지나 상징적 공간(광화문, 서울광장 등)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상징성을 스토리텔링해 관광 자원화하는 시도가 부족함

- K-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여 정치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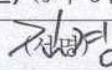
< 경관과 관광 경험 조성 >

- 미국 국회의사당은 단순히 정치 공간을 넘어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며 머무를 수 있는 광장을 제공하여, 정치문화와 일상적 체험을 연결하고 있음
- 서울의 광화문 일대는 민주주의 상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계적 해설 콘텐츠가 부족함
- 서울도 국회의사당·광화문 광장 등 민주주의 공간을 정치문화 관광지로 체계화하여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확인사항 >

- 정치·민주주의 관광자원화 전략 마련
 - 미국 국회의사당처럼 상징 공간을 관광·교육 콘텐츠로 결합
- 스토리텔링 및 체험형 콘텐츠 강화
 - K-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해설 투어, 전시, 체험 프로그램 도입
- 광장·도보 동선 최적화
 - 포토 스팟, 시민 쉼터, 안내판 등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정치문화 관광지 조성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김 경 의원)

활동국(기관)	미국(매사추세츠주의회, 뉴욕주의회, 카네기홀, 뉴욕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코리아스터디그룹,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활동목적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혁신 및 복합문화공간 모델 적용		
활동기간	2025. 9. 14.(일) ~ 9. 21.(일) (6박 8일)		
활동자	성명	김 경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화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NYPL)은 세계적 규모의 장서와 희귀 자료뿐 아니라 전시, 강연, 디지털 체험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자료 열람 공간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서울의 공공도서관 역시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나, 자료 제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임 ○ 따라서 뉴욕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 자료 관리, 시민 접근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 콘텐츠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 시민 중심의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통합 운영 모델 도입 필요 ○ 뉴욕 공공도서관은 열람실, 전시 공간, 강연홀, 디지털 학습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학습·체험·휴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경우 열람 중심 구조가 주를 이루어 시민 체류 시간이 짧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낮은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공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시민이 '머무는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향후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방향성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충과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 뉴욕 공공도서관은 온라인 아카이브, 오디오 가이드, 디지털 학습 도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서울시도 디지털 콘텐츠 확충을 통해 원문 열람, 온라인 전시, 시민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 기반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독서 모임, 강연, 지역문화 연계 전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도서관이 단순한 지식 보관소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시설 운영체계 구축

- 뉴욕 공공도서관은 기부·후원·민관협력 기반의 재정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 서울시 공공도서관도 공공예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업·시민 참여형 문화후원제도, 프로그램별 수익 환원 구조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도서관을 시민의 일상 속 문화·교육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운영 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임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아이수루 의원)

활동국(기관)	미국(매사추세츠주의회, 뉴욕주의회, 카네기홀, 뉴욕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코리아스터디그룹,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활동목적	선진사례 분석 및 서울시 다문화정책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 조사		
활동기간	2025. 9. 14.(일) ~ 9. 21.(일) (6박 8일)		
활동자	성명	아이수루 (서명)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건

□ 서울시 다문화 정책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서울시의 문화예술 정책은 시민 참여 확대, 사회 통합, 다양성 존중을 핵심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미국의 대표적 사례인 카네기홀(Carnegie Hall), 뉴욕주의회, 매사추세츠주의회의 다문화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문화시설과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문화예술을 통한 다문화 사회 통합(카네기홀)

- 지역 커뮤니티 연계 및 접근성 강화
 - 카네기홀은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학교,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한 음악·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이주민 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무료 입장권 제공
 - 서울시 적용 시사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무료·할인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학교·센터 연계 참여 확대
-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다문화 통합
 -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등에서 세계 각국 음악과 다양한 문화 반영
 - 학생·주민이 직접 민족 음악·전통 예술 체험
 - 서울시 적용 시사점: 세계 문화 콘텐츠 활용 체험형 교육 과정 개발, 다문화 이해 증진, 지역 주민·다문화 시민 간 교류 촉진
- 공연 및 프로그램 기획에서의 다양성 반영
 - 다문화 예술가 초청, 민족 음악 특별 공연, 다문화 축제 연계 공연 진행
 - 서울시 적용 시사점: 다문화 예술가 참여 확대, 공연·전시 기회 제공, 문화 다양성 존중 의식 확산
- 정책 홍보 및 참여 촉진
 - 다언어 안내자료 제공, 온라인 홍보, 지역 커뮤니티 협력 활용
 - 서울시 적용 시사점: 다언어 홍보자료, 온라인 참여 시스템, 참여 장벽 최소화

☐ **뉴욕주의회의회의 차원의 다문화 정책**

☐ 주민 참여 및 공공정책 연계

- 뉴욕주 하원의 론 김 의원은 교육, 공공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기반 다문화 정책을 강조
- 다문화 시민 대상 공교육 강화, 커뮤니티 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적용 시사점: 지방 문화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문화 시민 참여 확대, 지역 네트워크 활용

☐ 정책 기반 지원 및 재정 확보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 민관 협력 펀딩 활용
- 서울시 적용 시사점: 다문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 구조 마련, 민간 후원 및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 사회 통합 및 다양성 존중

- 다문화 시민이 지역사회 활동과 문화예술 참여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도록 유도
- 서울시 적용 시사점: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통합, 다문화 시민의 권리와 참여 기회 강화

☐ **입법·재정 차원의 다문화 정책(매사추세츠주의회)**

☐ 공공 교육 및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 다문화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센터 운영 지원
-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시민 참여 유도
- 서울시 적용 시사점: 다문화 시민 참여 중심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

☐ 재정 지원 및 프로그램 지속성 확보

- 주정부 차원의 문화예술 지원금 및 장기 운영 보조금 제공
- 다문화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확대에 기여
- 서울시 적용 시사점: 장기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 프로그램 운영

☐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참여자 만족도 및 사회적 통합 성과 모니터링
- 서울시 적용 시사점: 다문화 정책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지속적 정책 개선 기반 마련

☐ **종합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전략**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다문화 시민의 사회적 참여 및 소속감 증대

- 지역 커뮤니티 중심 프로그램 설계
 - 학교, 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접근성 강화
-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세계 문화 콘텐츠 활용, 포용적 교육으로 다양성 이해 확대
- 참여 기회 확대 및 홍보 다언어화
 - 정책 수혜자 범위 확대, 참여 장벽 최소화, 시민 참여 활성화
- 다문화 예술가 참여 확대
 - 공연·체험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문화와 직접 교류

□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서울형 모델 연구 필요성

- 서울시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다문화 시민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미국의 카네기홀, 뉴욕주 의회, 매사추세츠주 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형 다문화 사회 통합 모델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 참여 확대, 사회 통합, 다양성 존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 가능
 - 다문화 시민 참여 기회 확대
 - 교육·공연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반영
 - 지역 커뮤니티 연계 강화 및 접근성 확보
 - 홍보·정보 제공의 다언어화 및 참여 장벽 최소화
 - 안정적 재정 지원 및 민관 협력 기반 운영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김형재 의원)

활동국(기관)	미국(대사추세츠주의회, 뉴욕주의회, 카네기홀, 뉴욕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코리아스터디그룹,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활동목적	한미 우호 증진 및 평화역사 교육·관광 자원화 방안 모색	
활동기간	2025. 9. 14.(일) ~ 9. 21.(일) (6박 8일)	
활동자	성명	김형재 (서명)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건

□ 평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서울형 기억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 한국전참전용사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은 한국전쟁(1950~1953)에 참전한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으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미국 내 여러 지역(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 위치한 참전용사기념공원은 현지 참전용사 단체, 지방정부, 한인사회가 협력해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추모식·헌화식·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형 기념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쟁·평화·역사라는 주제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는 ‘기억관광(Memory Tourism)’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 도심 내 전쟁기념관, 청년 평화포럼, 시민참여형 추모전시 등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단순한 역사교육을 넘어 감성적 공감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평화·추모의 대중화 및 참여 확산 필요

- 한국전참전용사기념관은 조형미와 상징성을 겸비한 공간 디자인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 스테인리스 군인 조각상(19점)은 Frank Gaylord가 제작한 것으로, 반사벽에 비친 모습이 총 38명으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38선’을 상징함
 -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유엔 참전 22개국 명단이 새겨진 유엔 벽(UN Wall), 2022년 완공된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은 국제적 협력과 희생의 의미를 상기시킴
- 서울시 또한 이러한 상징적 조형물·전시기법을 문화예술과 접목해 시민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전쟁의 교훈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화 퍼포먼스, 청소년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억의 문화화’를 추진한다면, 추모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한·미 협력을 통한 청년 참여형 평화·역사 교류 프로그램 추진 필요**

-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은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억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평화 교육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청년세대가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한·미 청년평화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참전기념관 방문, 공동 추모식 참여, 평화콘텐츠 공동제작(영상·전시·공연) 등 실질적 체험 중심의 교류 활동을 통해 한·미 우호 관계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체육·문화 교류를 통한 한·미 우호 강화 및 글로벌 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 태권도와 같은 한국 전통 체육은 평화와 존중의 가치를 담은 문화콘텐츠로서, 참전기념사업과 결합할 경우 한·미 간 교류의 새로운 상징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서울시는 태권도 시범공연, 평화 마라톤, 시민참여형 기념행사 등을 통해 '평화의 스포츠 외교'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문화적 연대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체육·문화 융합 프로그램은 서울이 단순히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는 도시를 넘어, 평화와 인류애를 문화적으로 실천하는 '글로벌 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추모공간의 관광자원화 및 지속운영 기반 마련**

- 한국전참전용사기념관은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해설 콘텐츠를 통해 일반 방문객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며, 추모공간을 관광 자원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함
- 서울시는 증강현실(AR) 기반 역사체험, 가상현실(VR) 참전기록 전시, 온라인 헌화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문화·관광·교육 부문 간 연계형 사업으로 발전시켜, 추모의 의미를 지속 가능하게 전파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형 평화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김혜영 의원)

활동국(기관)	미국(매사추세츠주의회, 뉴욕주의회, 카네기홀, 뉴욕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코리아스터디그룹,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활동 목적	서울시 공연장 운영 방식의 변화 및 재정 자립 모델의 필요성 연구	
활동 기간	2025. 9. 14.(일) ~ 9. 21.(일) (6박 8일)	
활동자	성명	김혜영 (서명)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건		
□ 글로벌 문화예술 교류 기반의 서울형 공연장 운영 및 재정 자립 모델 연구 필요 ○ 카네기홀(Carnegie Hall)은 1891년 뉴욕에 개관한 세계적 공연장으로,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팝·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 기부와 대규모 기금 운용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와 신예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글로벌 음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자체 기획공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Carnegie Hall+',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수익·사회·교육 기능을 균형 있게 운영함으로써, 예술기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러한 카네기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문화회관·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공공 공연시설의 재정 자립 기반 강화 및 글로벌 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서울형 모델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민간 기부 기반의 지속 가능한 공연장 운영 및 재정 구조 혁신 필요 ○ 카네기홀은 민간 기부, 개인·기업 후원, 투자기금(Endowment Fund) 등으로 재원을 다각화하여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Carnegie Hall+'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공연 실황 콘텐츠 판매 등 디지털 수익사업을 통해 예술기관의 자립적 운영 모델을 제시함 ○ 서울시 공공공연시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자율적 기획과 장기적 투자에 제약이 존재함 ○ 따라서 민간 후원, 시민 펀딩,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수익사업을 강화해 '서울형 예술기관 자립모델' 구축이 필요함 □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및 사회통합 강화 ○ 카네기홀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		

- 저소득층 및 이주민 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무료 입장권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문화 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할인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 커뮤니티·학교와 연계한 시민참여형 문화교육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네트워킹 및 예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브랜드 제고 필요

- 카네기홀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아티스트와의 협업 공연 및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협력 모델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남산국악당 등 서울시 문화기관이 세계 주요 공연장·예술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기획 공연, 한·미 예술교류주간, 글로벌 청년음악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중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연예술의 확장성과 접근성 제고

- 카네기홀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Carnegie Hall+' 를 통해 공연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며, 공연예술의 경계를 디지털로 확장하고 있음
- 서울시는 공연장 중심의 오프라인 운영에서 벗어나, 온라인 중계·스트리밍·가상현실(VR) 공연 등을 결합한 디지털 문화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시민이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공연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할 수 있음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 카네기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지역사회의 예술교육·사회통합·문화복지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인종·세대·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을 통한 다문화 사회 통합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서울시는 예술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문화예술 참여조례(가칭)' 제정 및 지역 단위 예술참여센터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술기관의 재정성 및 예술성의 조화의 서울형 모델 적용 발전

- 카네기홀의 사례는 예술기관이 공공성과 자립성, 지역성과 글로벌성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 모델로 평가됨
- 서울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민간 후원 및 디지털 기반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자립 구조 확립
- 지역 학교·센터 연계형 시민 참여형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 글로벌 예술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제 문화교류 확대
- 공연예술의 디지털화 및 접근성 강화
- 다문화 시민 참여 및 사회통합 중심의 예술정책 추진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 1인당 468만원(한도), 직원 1인당 468만원(한도) 예산배정

□ 소요예산 : 46,588,240원

구 분	청구액(원)	비 고
의원여비	18,72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직원여비	17,518,24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사무관리비	5,1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합 계	46,588,240	

□ 기관방문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언 론 보 도
매사추세츠주의회 (11개)	(뉴시스) 서울시의원 만난 美 주의원 “트럼프 정책, 유학생 유치 걸림돌” (9/17)
	(CNB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회 간담회 성료 (9/17)
	(핀포인트뉴스) 서울시의회 문광위, 美 매사추세츠주의회와 간담회 (9/17)
	(민주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매사추세츠주 의회와 정책 교류 (9/17)
	(이뉴스투데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사추세츠주 의회 공식 방문 (9/17)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회 간담회 (9/17)
	(열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 공식 (9/17)
	(디스커버리뉴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회 간담회 (9/17)
	(뉴스로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美매사추세츠주의회 간담회 성료 (9/17)
	(파이낸스투데이) 김정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美 매사추세츠주의회와 간담회 (9/17)
	(투어코리아뉴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회 간담회 (9/17)
뉴욕주의회 (9개)	(서울신문) 서울시의회-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간담회, 한미 지방의회 정책 협력 모색 (9/17)
	(CNB저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서울시의회 간담회, 한미 지방의회 정책 협력 모색 (9/17)
	(비즈월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서울시의회 간담회, 한미 지방의회 정책 협력 모색 (9/17)
	(디스커버리뉴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 서울시의회 간담회, 한미 지방의회 정책 (9/17)
	(퍼블릭타임즈) 서울시의회, 론 김 미국 하원의원과 지방의회 협력 논의 (9/18)
	(파이낸스투데이) 서울시의회 문체위원회-뉴욕주 하원의원 간담회… “한미 지방의회 정책 협력 강화” (9/19)
	(뉴스보고) 서울시의회 문체위, 뉴욕주 의회와 맞손…주거문화도시브랜딩 협력 논의 (9/21)

구 분	언 론 보 도
	(서울로컬뉴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서울시의회와 간담회 가져 (9/23)
	(퍼블릭타임스) 서울시의회, 론 김 미국 하원의원과 지방의회 협력 논의 (9/17)
카네기홀 (8개)	(뉴시스) 서울시의회 문체위, 美 카네기홀 방문…협력 방안 모색 (9/19)
	(CNB저널) “서울과 뉴욕, 음악으로 잇는 다리… 서울시의회 카네기홀에서 시작된 문화 교류” (9/19)
	(디스커버리뉴스) 서울시의회, 카네기홀 방문해 운영 철학·교육 프로그램 청취 (9/19)
	(핀포인트뉴스) 서울시의회, 뉴욕 카네기홀 방문… “서울과 뉴욕, 음악으로 잇는 다리” (9/19)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과 뉴욕, 음악으로 잇는 다리 . . . 카네기홀에서 시작된 문화 교류” (9/19)
	(매일일보) “서울과 뉴욕, 음악으로 잇는 다리…카네기홀에서 시작된 문화 교류” (9/19)
	(전국매일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욕 카네기홀 방문 교류협력 논의 (9/19)
	(파이낸스투데이)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美 '카네기홀 방문 “서울과 뉴욕, 음악으로 잇는 다리… 카네기홀에서 시작된 문화 교류” (9/21)
뉴욕한국문화원 (5개)	(매일일보) 서울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문화로 만난 서울과 뉴욕·미래 이야기” (9/22)
	(CNB저널) 서울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문화로 만난 서울과 뉴욕, 미래를 이야기하다” (9/22)
	(디스커버리뉴스) 서울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문화로 만난 서울과 뉴욕, 미래를 이야기하다” (9/22)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9/22)
	(글로벌에픽) 서울시의회, “K-뷰티·K-컬처 확산“… 뉴욕서 미래 전략 모색 (9/23)
뉴욕시의회 (6개)	(민주신문) 서울시의회 문체위, 뉴욕시의회와 정책 교류…문화·주거·관광 현안 논의 (9/23)
	(CNB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욕시의회 방문 (9/23)
	(투어코리아뉴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뉴욕시의회와 문화·주거·관광 정책 논의 (9/23)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욕시의회 방문해 문화·주거·관광 정책 논의 (9/23)
	(디스커버리뉴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욕시의회 방문해 문화·주거·관광 정책 논의 (9/23)
	(뉴스로드) 서울시의회 문체위, 뉴욕시의회 방문 문화·주거·관광 정책 논의 (9/24)
한국전참전용사 기념공원(1개)	(미주 한국일보) 서울 시의원 4명, 워싱턴 방문 (9/23)

○ 매사추세츠주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회 간담회 성공리 끝마쳐

등록 | 2025-11-11 09:00 | 수정 | 2025-11-11 09:00



문화예술·체육 정책 개발을 위해 11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공식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가 11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문화예술 분야 ▲교류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와 문화예술기관 지원 정책인 김경 위원장 (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 및 장기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 등을 통해 ▲인공 지능에 협력성에 그치지 않고 일기해, 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에 합치 ▲문화예술 기관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주요하게 다룬다.

김경 위원장은 특별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교육 강화 및 노동권 강화에 대한 제헌추세에주의'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추진 과제를 알고 싶다'라며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다.



특별 위원회 구성발령을 받은 서봉서(2차) 전임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

이때 대해 특별 T. 톰루엔(Tam T. Thuywen) 이사추세즈주 하원 의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 확대와 함께 교사 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교수 출신인 김경 위원장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봉서도 합의를 고안한다 보니 노동 인권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상에 합의 증명한다"라면서 '전공자능력(A)'이 노동시장에 재능 발휘를 대응책은 어떤면지, 그리고 최근 미국 정부가 허버트 유한성들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특별 위원은 '서 봉선 변호에 대비할 정책'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노동자의 정책,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발의안을 강조하여, 두 번째 차원에서 반독점법과 녹색 일자리 법률에 중점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를 유학생 등 국제 인재를 확보하는 정책을 공유했다. '다만 이런 정책은 연방 정부 권한이라는 관점이 있으며, 특히 토머스 전 대통령의 정책이, 유학생 유치와 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있다'라는 지적들과 우려를 함께 표했다.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역사유적문화유산의 중요 관심과 적극적인 방안을 어떤 강물이 되는지 알고 있다”라며 “최근 한복에서는 한복의 사본으로 해관들의 물려와 전통의 관심이 현존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로열 드레스는 “지역구인 역사유적문화유산의 중요 관심과 적극적인 방안을 어떤 강물이 되는지 알고 있다”라며 “최근 한복에서는 한복의 사본으로 해관들의 물려와 전통의 관심이 현존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기타 예술인을 위한 정책에 조성이 가장 큰 중요이다”라고 소개하며 “국립미술관, 문화원, 미술가협회, 공연을 하는 공연 어디까지 알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을 공했다”



문화유산, 지역 문화 개발을 위해 15일(월)사건(15)과 역사유적문화유산의 중요 관심과 적극적인 방안을 어떤 강물이 되는지 알고 있다”라며 “최근 한복에서는 한복의 사본으로 해관들의 물려와 전통의 관심이 현존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트럼 의원은 "성당 과정과 변호사 활동 경험으로 인해 저소득층, 노년 인종, 공교육 등에 관심을 기울게 되는 것 같다"라면서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대응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어수후 부위원장은 "키르기즈스탄 출신으로 서울에서의 활동을 하다보니 소속 정당의 다른 국회의원회 의원들과도 알게 되었다"라며 "트럼 의원이 주력하는 부분과 관련 인물 자질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설명을 요청했다.

트럼 의원은 "이런자 정착 지원을 위한 '신미국인 사무소(New American office)' 같은 조직도 운영 중이다"라며 "특히, 아시아인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 인종에 따른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을 위한 도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정부 이해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함을 표한다.

트럼 의원은 끝으로 아시아계 코커스 활동도 언급하며, 코커스는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와 노동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대외경제추진위원회의 전담은 노동권 보호, 인권지원 대응, 기후변화, 이민국 공적 보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향후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 뜻을 모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의회

○ 뉴욕주의회

서울시의회-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간담회, 한미 지방의회
정책 협력 모색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05–114

[illegible][illegible]

간담회는 김경 위원장이 종교학과 종교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본 김 의원은 “지속적인 물려받은 노인 국가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며, 이는 교육 정책의 대안사가 되고 있는 문화 교육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약 1천만 미리의 증가 편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반 활동과 문화에 대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 위원장은 이어 “서울에서 현대문화 수요가 증가할수록 문화 향상이 필요하다”며, 유서로 고민을 강조했다.



김경 위원장, 본 김 뉴욕주 위원장, 서울시장회

김경재 위원장 역시 부록 문제를 지적했다. 본 김 의원은 “대선은 늘 문제가 있다”며 2020년 11월 대선을 당시 노인 사임 문제를 다루며 모든 어려움을 전하며, “그 결과로 경주는 문화 관련 사업에서 활동하며 한미 문화 확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재 위원장은 향후 내 대법 공약인 전일 전향을 소개하자, 본 김 의원은 “뉴욕에서도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성장이 뚜렷하다”며 향후 문화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경재 위원장은 도시 브랜드 전략을 설명했다. 본 김 의원은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은 물론이고 이미 세계적 브랜드가 되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처럼 대중적으로 브랜드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특히 소문(South by Southwest)에 대한 소개와 교제가 많았던 서울 브랜드의 일정을 접하고는 “뉴욕과 서울은 다르지만,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중인 윤 총 일 부속주 재임대표(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와 뉴욕주의회 간 정책 기술협력에 대한 발언에는 "뉴욕과 서울은 많은 점이 같다"면서 "특히 행정부의 방어진 정책으로 교육과 관련한 일은 여럿이지만, 한국과는 굉장히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가운데 '공정' 추가 검토 같은 불만있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원의 자발적 부 자원을 긴밀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치수 부위원장은 윤 총 의원이 정치적 동거를 말했다. 윤 총 의원은 "여러 사람 어떤가 가정에서 잘 과신과 가난을 피하며 기본 생활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공산품과 두터워져서 경제가 안정 될 수 있다. 그에 지원 정책과 추가 민생 대책을 통해 계급 차이가 기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 정책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유복 불려있는 부에 더 연대가 공평하는 대동적 다문화 도시"라며 "어떤가 수준이 큰 정책 향상으로 통치비지만, 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말죽이 추가 간담, 문화 교류 도시 교환 및 다문화 사회 정책에서 협력을 여럿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마무리했다. 윤 총 의원은 "서울시와 뉴욕주는 문화의 과정을 안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책적 해법을 찾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한미 자문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는 뜻을 밝혔다.

[illegible]



서울시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희진) 차관으로 부위원장을 맡았던 유정, 김태형 부장(구 서울
문화재단 이사장) 유정 부장은 공을 밝힌데 비해 서울시가 공인을 앞두고 있던 김 태형을 그로 임명 방안
을 논의했다. 유정 위원장은 세력 비교 공인장과도 관련된 자료를 내놓고 구회를 위한 의회 임명 청문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네기홀 로열홀 연례세션 10회 교육장관, 김명대, 차은, 김태근, 유종, 1900년대 영문학책의 역사 조르즈 고들랑, 제인 개, 임형성, 김경, 차은영, 1900년대 문학상

이제 김 위원장은 "170년 동안 우리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양국 세력"을 통해 "양국이 핵심적 역할을 맡은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을 주고, 양국형 지형으로 양국을 통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영, 독일, 프랑스, 일본"은 "일본은 '독립'을 얻고, 양국형 지형으로 양국을 통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영, 독일, 프랑스, 일본"은 "일본은 '독립'을 얻고, 양국형 지형으로 양국을 통한다"고 밝혔다.

카네기홀 문학상장은 "미국인들이 1900년대 11월 카네기홀에서 '미국 문학상'을 받았다. 카네기홀은 '미국문학'을 전한 문장을 통해 미국, 영국, 미국으로 양국을 통한다. 카네기홀은 '미국문학'을 전한 문장을 통해 미국, 영국, 미국으로 양국을 통한다. 카네기홀은 '미국문학'을 전한 문장을 통해 미국, 영국, 미국으로 양국을 통한다.

김명대 위원장은 "미국, 영국, 미국으로 양국을 통한다. 카네기홀은 '미국문학'을 전한 문장을 통해 미국, 영국, 미국으로 양국을 통한다. 카네기홀은 '미국문학'을 전한 문장을 통해 미국, 영국, 미국으로 양국을 통한다. 카네기홀은 '미국문학'을 전한 문장을 통해 미국, 영국, 미국으로 양국을 통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단장 최정호, 지휘자 이기우)은 2014년 11월 21일(토) 19시 30분부터 2014년 11월 22일(일) 14시 30분까지 서울대극장에서 '2014년 국립교향악단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14년 국립교향악단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14년 국립교향악단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정호, 이하 문화체육)는 11월 17일(화요일) 서울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하여 최정호 위원과 문화체육재단장 박근호, 서울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현을 만나 문화재단을 소개하고, 서울문화관광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김달희를 시작으로, 김 용장은 '최초의종교개혁교회, 천주교를 본 성당'을 소개하며, 장근, 문희가 영어, 한글, 문화를 소개하며, 새금 배치를 소개하며, 한 기부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뉴올리저는 비영리기관으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라며 "문화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감성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 상충 문화장은 영구적 비록 기부를 보좌하, 활동한 작품을 소개하고, 장정은 "미국은, 세계문화로 부터 살아 보게한다"라며 "기부자, 작품이다"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도 기부를, 세계 문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이 뉴올리저문화재단에 뉴올리저문화재단 전설에서 서울시립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에게 전설에서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숙 노원문화재단장(앞줄)이 노원문화재단을 방문한에서 서울노원문화재단장(뒷줄)과 함께한 사진

이와 김 씨재단장은 서울문화재단과 문화재단의 협력 관계를 통해, 문화재단이 2025년 10월 1일부터 문화재단 2025년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앞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에는 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재단의 미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문화재단의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원문화재단을 방문한에서 김민숙재단장(앞줄)과 함께한 사진. 김민숙재단장(뒷줄)과 함께한 사진

김정일 위원장은 북을 위해서 최고조까지 군정교섭에 적극 협력하고, 조양은 '원석교섭'을 하라 그 때부터 '원석교섭'이라는 단어를 통틀어 자주 사용하면서 북교섭이 자주 문장 속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정교섭에서 커다란 역할임을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여 대한 관심으로 확대하고 나서 점차 군정교섭으로 변했다. 이 '원석'은 적실함, 소박성,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注意：在選擇數據源時，如果數據源是本地數據源，則數據源名稱必須與數據源名稱一致，否則會報錯。

이런 것 외에도 전기·유선으로 전송하고, 전기는 '대기'로부터 전자기파 형태로 모으는다고 해서 '전송'하면서 송출에 따라 수신이 달라지고 있다. 그 때문에 송파 서울경제방송과 송파에 전파를 내보내지 않기로 한 김포방송은 본사로 돌아와서 '전파'를 통해 '전파'를 송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파 방송이라고 하면,

기회!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2025. 03. 01 ~ 03. 07) / 03. 01 ~ 03. 07

출발도시: 서울특별시 / 도착 도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일본, 한국

출발도시: 서울특별시 / 도착 도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일본, 한국

출발도시: 서울특별시 / 도착 도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일본, 한국

출발도시: 서울특별시 / 도착 도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일본, 한국

출발도시: 서울특별시 / 도착 도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일본, 한국

출발도시: 서울특별시 / 도착 도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일본, 한국

다라는 김경 유현정의 전 사할로 사해라고 김 유현정은 뉴욕시외곽의 무카헨츠로 보스톤 대학의 편입생로 뉴욕시외곽의 김달을 만나게되고 교집합이다. 이대-윌리엄스 대학은 본인이 지각후보로 되고 있는 편입은 이대를 전입하고 무카헨츠 고향에서 유현-현정의 전다. 윌리엄스 대학은 앞의 현정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김달 다다미 다해 유현정이 개입할수있게 줄여주는 일을 때문에 불행히도 앞섰고, 이고 유현정이 그는 다음 해에하기 위해 뉴욕시가 이회 오프 오픈(ing of new)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문으로 감·회통장은 '한국은 문화 민주주의 정책을 통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만났어지만 유산을 계기로 앞으로 서로를 배우고 나누어 가진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날 만남을 마무리했다.

Copyright © 2004 by John Wiley & Sons, Inc. All rights reserved.

○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한국시원

한-미 연합

KOREA UNITED

서울 시의원 4명, 워싱턴 방문

2024.04.24 (수) 14:45:00

이영환 기자

한국시원



서울 시의원들끼리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했다. 김경 위원장, 이이수 부 위원장(의정 다들여민주당), 김형대 집행장 의원(더불어 안전지원) 등 서울시의회 문희대유공자유공회 소속 의원 4명 을 포함한 보좌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제이대원대공도협회(회장 김기문)의 주선으로 14일 한 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찾아 견학했다.

참전용사기념공원을 방문에서는 김기문, 신 부의사장의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원들은 또, 박근 서지현주, 박서진, 안영, 허정희를 사무실을 방문해, 공해 일각에서 열린 미주한인재향에서 4명의 대공도 사병 들에게 표창장 준 것에 대해 감사할 전했다.

이번 국회의 참전기념공원을 방문에는 김기문 제이대원대공도협회장과 임광철 제이대공도협회 부회장 (최남현기두서 전무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영환 기자

